*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다 라고 누가복음 16:16에서 말씀하신. 여자가 난중에 세례요한 이 가장 큰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자라 하심은, 구약시대 인물들중에 가장 큰자는 세례요한 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예수님의 피때문에 더 큰자이다. 즉 신약의 의로움이 구약의 의로움 보다 훨씬 크다. 세례요한이 구약시대 사람들중 가장 큰자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.
* Alexander 알렉산더 대왕(356 - 323)의 영향.
  + 헬라어 가 세계공용어 가 됨.
  + 헬라식 교육과 문화를 널리 퍼트림.
  + 33세를 삼. 그래서 세상은 33세를 산 사람이 큰일을 한다는 농담이 있음.
  + 그리스 반도에서 인도 겐지스강 까지 점령함. 인도 겐지스강 까지 점령한 후 더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는 설이 있음.
  + 바벨론 에서 죽었음. 바벨론 에서 술 먹다가 술병으로 죽었음.
  + 죽을때 신하들이 알렌산더가 세운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주실꺼냐고 신하들이 물어봤을때 강한자가 다 가지라고 했다고 함. 그래서 4장군이 알렌산더의 제국을 4개로 나누어 가짐.
  + 유대인들도 알렉산더의 통치함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와 히브리어 둘다 쓰게 됨.
  + 알렌산더 의 영향으로 극장과 공중 목욕탕, 운동장 과 여러 오락문화 그리고 영수증 문화 까지 헬라문명과 같이 들어옴. 부적과 연애편지 도 헬라문명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게됨.
  + 그래서 젊은 유대제사장 들이 헬라식으로 남자들이 다 발가벗고 운동했다고 마카비서 에 기록됨.
* 유대교의 정치적 배경
  +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왕이 5명이 나옴.
  + 헤롯왕가 는 에돔인 으로써 에돔인은 에서의 자손이다.
  + 헤롯대왕(37 – 4BC) 은 반 에돔인, 반 유대인 이었다.
    - 아들 대부분을 죽이고 3아들만 죽이지 안았음.
      * 아켈라오 – 헤롯대왕이 죽은후 유대를 받음.
      * 안디바 – 갈릴리 를 받음.
      * 빌립2세 – 트랜스요르단 을 상속받음.
  + 아켈라오 가 너무 잔인한 왕이 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래서 아켈라오 가 왕에서 페해지고 로마 총동이 와서 유대를 지배하게 됨, 그 로마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임.

유대는 신정체제(Theodocy) 임.

* + 대제사장 이 왕의 통치까지 하면 신정체제 라고 함.
  + 그래서 유대는 대제사장 과 Sanhedrin 이라고 하는 70명의 의원들이 다스렸음.
    - Sanhedrin 의 구성
      * 제사장 귀족그룹(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음. 정말 The 대제사장이 아니지만)
      * 백성의 지도자들(장로, 두목)
      * 바리새파/서기관
        + 바리새파는 제사장들이 지키는 엄격한 율법을 제사장들이 아닌 자기들도 지키겠다고 만든 어떤 종교적 운동파. 대부분 상인들이 했음. 이 바리새파 들중 성경의 박사가 된 바리새파 들이 산헤드린에 들어갔음. 즉 랍비(서기관) 들을 말함.
  + 대제사장 과 제사장들의 파워는 성전을 관리한다는데 있음.
    - 그때 당시 성전이 최고로 cash flow 가 좋았음. 왜냐하면 항상 헌금이 들어오기때문임. 그래서 성전금고 에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항상 관권 이었음. Bank 가 바로 성전금고 에서 나온것임. Banc 란 원어는 책상을 말하는데 바로 성전에서 이 책상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준것임 소액의 fee 를 받고. 예를 들어 fee 를 받고 큰돈을 잔돈으로 바꾸주고 등등.
  + 예수님 당시에 레위인 들중 아론의 자손이 만명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들이 24반열(반차) 로 나뉘어져 있었음. 그래서 자신의 차례때 2주씩 성전에서 섬겼음.
  + 예수님 당시 가장 가난한곳은 예루살렘 인근이 가난했고 갈릴리는 비교적으로 잘살았다고 함. 예루살렘 은 돈이 많았는데 성전에 모이는 엄청난 헌금 과 또 모든 남자들이 성전세를 일년에 한번씩 냈어야 했음.. 특히 대제사장들은 엄청 부자가 됬음.
  + 또한 제사로 드린 양과 소의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들의 소유였는데 제사장 들이 그 남은 고기를 팔기도 했다고 함.
  + 소작인 들의 입장에서 보면, 소작인들은 지주에게 땅에서 농사한 것의 반정도를 지주에게 주고, 헤롯왕에서 세금 내고, 또 로마에게 세금 내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십일조 를 바치고 성전세 내고 했어야 하므로 소작인들은 가난할수 밖에 없었음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일조를 못드렸음. 그래서 십일조 를 못드리니 제사장들이 수입이 없어서 굶어죽은 제사장들도 있다고 함.
  + 즉 위의 높은 대제사장들은 아주 부유하고 사치스러웠고 그 밑에 일반 레위 제사장들인 아주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음.
  +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유대인 들이 메시아 를 기대하는 마음이 컸음.
  +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by Jeremias 이라는 책을 보면 그때 시대의 상황이 잘나와있음.

예수님 당시에 4종파(sect 섹트) 가 있었음.

* + 사두개파
    - 왕관파 라고 할수 있음.
    - 누구든지 지배자가 되면 가서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파.
    - 주로 귀족들이 속해있었음.
    - 보수적임. 모세 5경만 인정함.
  + 바리새파
    - 일반인들이 속해있었음.
    -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로마에 지배를 받고 벌을 받는다고 믿었음.
    -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음.
    - 대제사장들이 지키는 purity law 를 일반 평신도인 바리새파 들은 일상생활 에서 지켰음.
      * 예를 들어 밥을 먹기전에 손을 씻는것은 대제사장이 지키는 법인데 자기들이 지켰음.
    - 로마를 상대로 대항하고 저항했음.
  + 열심당(Zealots)
    - 예수님 제자중에 열심당 시몬이 있었음.
    -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폭력도 쓰는 사람들이었음.
    - 자신들의 영적인 뿌리를 비느하스로 보았음. 비느하스가 발람의 계략에 빠져 모암의 여자들과 음난한 짓을 하는 유대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것에 그 뿌리를 두는것임.
    - 그러므로 열심당 들도 자신들의 폭력의 근거를 비느하스에 두는것임.
    - 이들의 주일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로마에 협력하는 유대인들을 암살하거나 했음.
    - 자연적으로 열심당 과 사두개파 들은 원수지간 이었음.
    - 열심당이었던 시몬이 예수님 제자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정치성이 없엇다는 것을 뜻함.
  + 엣세네파
    - 바리새파 중에서도 더욱더 제사장적 삶을 사는 사람들.
    -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봤음.
    - 세상이 다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대제사장도 불법이었다고 봤음.
    - 종말이 다가웠다고 믿었기때문에 그래서 사해동굴로 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음. Qumron 공동체 라고도 함.
    - 이들이 남겨서 1940년정도에 발견된게 바로 Dead Sea Scrolls(DSS) 임. 지금은 Qumron document 라고 말함. 왜냐면 이들의 중요한 일중 하나가 성경을 사본을 뜨는것이었음.
    - 대부분의 엣세네파 들은 보통 사람처럼 마을에 살았으나 이중에서도 광야에서 떨어져 경건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을 Qumron 파라고 함. 이들은Qumron 공동체 에서 살았음.
    - 세례요한 은 Qumron 파라고 학자들이 보고있음.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때 세레요한 과 같은 메세지를 전파하셨음으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신학적 근거를 인정했다고 봄. 그러므로 엣세네파가 아니였을까 라고 봄.
* \* 신약시대의 유대시대 때 여자들은 외출할때 얼굴을 가려야 했고, 남자와 여자는 길거리에서 이야기 하면 안됬음.
* \* 이때는 직업에 귀천이 아주 많았음. 몸이 부정할 기회가 많을수록 비천한 직업으로 봣음. 예를들어 의사, 목동 등등 동물의 오물 피, 환자들을 만져야 하는 직업들이 비천한 직업 으로 봤음.
* \* 남자 10명이 회당에 모여야 예배를 시작할수 있었음.
* \* 남자는 13살이 되면 결혼을 했음.
* \* 랍비는 결혼을 꼭 했어야 했음. 하지 않으면 랍비라 인정하지 않았음. 그래서 예수님 과 사도바울 이 결혼을 했을것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것임.